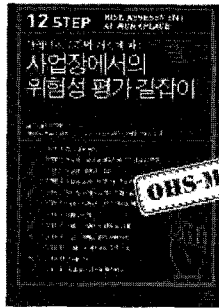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길잡이

저자 / 가와카미 쓰요시·하라 구니오·이토 아키요시/김양호·박정선 옮김
출판 / 한울아카데미, ISBN 978-89-460-5180-5 93510

노동부에서는 2004년부터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방안과 사업장 유해위험성 평가 기법 개발 및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거쳐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를 전문(全文) 개정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로 도입하였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가운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러한 경영시스템적 접근법을 응용하여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일차 예방 중심의 활동이 과급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도서는 소규모 기업 현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쉽게 해설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꼭 유념하도록 권한다.

이 도서는 『곧바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매니지먼트 시스템(すぐできる安全衛生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労働科学研究所出版部, 2002)의 제2편을 중심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원서의 감수자와 저자는 전·현직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이다.

첫째는 기업의 경영방침과 합치되고 안전보건방침에 기초한,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즉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지금 당장 필요한 직장개선을 착실하게 실천해가는 목표관리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는 노사 전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형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참여한 근로자들 스스로 개선책을 제안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실천하기 쉬운 부분부터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현실적인 추진 방법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특색을 잘 살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제1장과 제2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의 흐름과 열두 단계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움직임을 참고하여 국

내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업 안에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킬지를 보여준다.

또 ‘위험성 평가’와 ‘위험도 관리’, ‘유해요인’ 등 이 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제2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열두 단계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인 열두 단계를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

제공 | 편집위원 강성규